

‘셔틀콕 여제’ 안세영 “완벽한 실력으로 세계 1위 지키겠다”

진천서 BWF 월드컵 슈퍼 1000 중국오픈 대비 훈련 구슬땀을 시즌 1000 시리즈 4개 대회·파리 세계선수권 우승 목표

배드민턴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라이벌 천위페이(중국·5위)의 공격력을 최고로 짚으며 공수가 완벽한 세계 최강 자리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안세영은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훈련장에서 열린 배드민턴 대표팀 강화훈련 및 미디어 데이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에는 수비형 선수를 추구했지만, 경기를 치를수록 수비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겠다”라며 “스트로크와 공격에서 파워가 많이 밀리는데, 정확성을 높이고 찬스에서 확실하게 끝내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2020 도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천위페이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력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안세영의 ‘난적’, ‘전적’으로 평가받는 천위페이는 지난달 말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컵투어 슈퍼 750 싱가포르오픈 8강에서 안세영을 2-0(21-13 21-16)으로 완벽하게 꺾었다.

안세영은 당시 올해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맛봤고 국제대회 연속 우승도 4회에서 멈췄다.

안세영은 “내가 생각하기에 천위페이가 공격으로 제1인 좋은 선수”라고 짚으며 “나도 그 정도까지는 올리고 싶다. 공격과 수비 전부 다 세계 최고여야 계속 1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의욕을 보였다.

박주봉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배드민턴 대표팀은 지난 15일부터 강화 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장 곳곳에서 선수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말 그대로 ‘강화’ 훈련이다.

안세영은 “정말 굉장히 힘들다. 이번 주를 버틸

수 있을까 의문도 든다”며 웃은 뒤 “새벽 훈련도 누구나 힘들 테지만 그래도 버텨야 더 좋아진다. (부상 등) 힘든 순간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기르고 반복훈련을 하다 보면 더 향상될 것”이라며 더욱 훈련 뒤에 다가올 달콤한 열매를 떠올렸다.

새로 도입한 영상 분석을 통해서도 “전에는 상대방에 대한 분석이 많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나에게 좀 더 집중하려고 한다”며 “플레이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는데, 어느 부분이 잘 작동했는지, 어떤 훈련을 더 많이 반복해야 하는지 유심히 찾고 있다”고 전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일본 대표팀을 이끌며 아마구치 아카네(3위)를 가르치던 박주봉 감독은 이제 안세영의 스승이 됐다.

안세영은 “훈련 도중 집중력을 잃으려고 할 때마다 감독님께서 다가오셔서 목적과 이유를 상기시켜 주신다”며 “먼저 다가오셔서 말을 해주신다 더 편하기도 하다. 1위를 지키는 게 어려운 걸 잘 아시고, 계속 소통하려고 해주셔서 나도 감독님을 믿고 대화할 수 있다”고 신뢰를 보였다.

다만 아마구치 공략법에 대해서는 잘 말해주지 않는다고 농담 섞인 폭로를 하기도 했다.

“아마구치가 경기를 뭘 때 한 번씩 들어 오셔서 코칭하셨는데, 나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기도 했다”는 안세영은 “이제 내게 아마구치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많이 안 해주신다. 내가 스스로 찾으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더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웃음을 지었다.

이에 박주봉 감독은 “당연히 세영이가 아마구치



안세영이 지난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 연맹 월드컵투어 슈퍼 1000 시리즈 인도네시아 오픈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를 상대로 2-1 역전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를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안세영이 세계 최강 자리를 지키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안세영의 당면 목표는 22일부터 27일간 열리는 BWF 월드컵투어 슈퍼 1000 중국오픈에서 우승해 올 시즌 1000 시리즈 4개 대회를 석권하고, 8월에 열리는 파리 세계선수권에서도 정상에 서는 것이다.

안세영은 “앞으로도 지지 않는 선수, 많은 선수에게 두려운 상대가 되고 싶다”며 “중국오픈과 세계선수권에서 당연히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게 목표다. 재미있게 하고 싶었는데 욕심이 계속 나긴 한다. 나를 묵묵히 믿고 열심히 훈련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지난해 선수 개인에 대한 스폰서를 풀어달

라며 목소리를 냈던 안세영은 협회의 관련 정관 개정에 대해 “선수들이 좋은 방향으로 스폰서를 받게 돼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선수가 더 잘한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스폰서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동은 ‘2연승’ vs 배소현 ‘2연패’...KLPGA 장타 대결 예고

내일 더해븐 대회 개최

오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의 더해븐 컨트리클럽 웨스트·사우스 코스(파72)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는 화끈한 장타 대결이 예상된다.

타이를 방어에 나서는 배소현과 2주 연속 우승을 노리는 이동은이 KLPGA 투어에서 손꼽는 장타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동은은 신인인 지난해 장타 3위에서 올해 장타 1위로 올라선 KLPGA 투어의 대표적인 장타자다. 배소현은 2022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장타 순위에서 10위 밖으로 밀린 적이 없다. 작년에는 5위, 올해도 9위에 이름을 올렸다.

돌은 드라이버 샷을 멀리 보내놓고 짧은 아이언이나 웨지로 그린을 공략하는 경기 운영으로 그린 적중률도 높다.

대회가 열리는 더해븐CC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KLPGA 투어 대회를 개최했고, 우승자 명단에는 장타자가 즐비하다. 장하나, 김세영, 박성현, 최혜진 등 장타자로 명성이 높던 선수들이 이곳에서 족배를 들었다.

15일 끝난 DB그룹 한국여자오픈에서 장타력과 정교한 샷에 약점이던 퍼팅까지 따라줘 생애 첫 우승을 따낸 이동은은 내친김에 2주 연속 우승을 노린다.

이동은은 “컨디션도 괜찮고, 최근 쇼트게임과 퍼트 감각도 좋아진 만큼 이 감을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 지난주처럼 침착하게 경기에 임하겠다”면서 “티샷은 페어웨이를 지키는 데 집중하고, 아이언 샷은 핀 위치에 맞춰 전략적으로 공략하겠다. 투언이 가능한 파 5홀에서는 과감하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동은



배소현

지난해 이곳에서 연장 혈투 끝에 시즌 두 번째이자 생애 두 번째 우승의 감격을 누렸던 배소현은 첫 타이틀 방어에 도전한다.

배소현은 지난달 첫 타이틀 방어전이었던 E1 체리티 오픈에서는 공동 9위에 그쳤다.

배소현은 작년 2라운드 때 10언더파 62타를 때려 코스 레코드를 세웠던 만큼 코스에 대한 자신감이 남다르다.

배소현은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시즌 첫 우승을 한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 준비 잘해서 작년처럼 좋은 모습 보여 드리겠다”면서 “장타에 대한 보상이 확실한 홀이 있어 그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체적인 코스 컨디션을 잘 파악해 플레이하겠다”고 말했다.

시즌 3승을 올려 상금과 대상 포인트, 평균타수 등 개인 타이틀 전 부문 선두를 달리는 이예원은 시즌 네 번째 우승을 바라보고 출사표를 냈다.

올해 우승을 신고한 박현경, 홍정민, 김민선, 김민주, 정윤지, 박보검 등도 출전한다.

최근 열린 두 차례 대회에서 내리 준우승한 신인 김시현도 주목할 선수로 꼽힌다.

지난해 이 대회 연장전에서 배소현에게 진 서어진은 설욕을 노린다.

KLPGA 투어 최다승(20승)에 1승 남긴 박민지의 경기기도 지켜볼 만하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두 차례 우승한 박희영이 초청 선수로 참가해 동생 박주영과 자매 대결을 벌인다. /연합뉴스

광주 강선희, 베이징 ‘월드 보치아컵’ 금

최아영 은메달

‘2025 월드 보치아컵’에서 광주 선수들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냈다.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5 월드 보치아컵’에서 국가대표 강선희(한전KPS)가 여자 개인전에서 4-2로 이기며 금메달을 얻어냈다.

강선희는 BC3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일본 아야네 이지노를 4-2로 꺾으며 금메달을 얻어냈다. 강선희는 2022년 국가대표에 발탁돼 항저우아시아인게임 복식 금메달, 파리 패럴림픽 복식 은메달 등을 따며 실력을 입증해 보인 바 있다. 개인전 금메달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국가대표로 선발된 최아영(광주장애인보치아연맹)도 여자 개인전 4강전에서 일본 후미코



‘2025 월드 보치아컵’에서 한전KPS 강선희(가운데)가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장애인체육회 제공>

에비사와를 8-1로 무찌르고 결승에 진출했으나 홍콩 히우 람 영에게 0-6으로 점수를 내주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아영은 지난달 태국에서 열린 ‘2025 월드 보치아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선수권대회’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장애·비장애 화합의 장’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성료

광주 이추홍·이봄 부녀 님시 투척 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돼 경기를 치르는 ‘제4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이 성료됐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강원 홍천군에서 열린 ‘제4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에서 광주 선수단은 금·은·동 각 1개씩을 목에 걸었다.

님시 투척(2인조) 종목에서는 이추홍(47)과 딸 이봄(13)이 대회 최초로 부녀가 한 팀을 이뤄 광주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따냈다.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채재정과 김영란은 은메달을, 남자복식에서는 최홍근과 서재홍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따낸 전남 선수단은 파라트라이애슬론에서 유명원, 유민수, 이소현이 합을 이뤄 1위를 차지했다.

또 배드민턴 여자 4인조(박다원, 곽영희, 이희숙, 이미경)와 IDD(지적·발달장애) 통합 여자복식(김선주, 배지희)에서는 각각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별의 항해 : 오혜성 개인전

일시 : 2025-06-05(목)~2025-07-06(토)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발레단 찾아가는 문화공연 '해설이 있는 발레'

일시 / 장소 : 2025-06-14(토) 16:30, 19:00 / 상무시민공원
2025-06-21(토) 16:30, 19:00 / 쌍암리민공원
2025-06-28(토) 16:30, 19:00 / 상무시민공원
2025-07-04(금) 19:00 / 교통문화연수원

문의 : 062-522-8716

*우천 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의 항해

일시 : 2025-06-05(목)~2025-07-06(토)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